

# 1950년대 한국군의 미국 군사유학 시행과 그 영향\*

김민식\*\*

1. 머리말
2. 미국의 한국군 '표준화' 구상과 방안
3. 한국군의 유학생 선발과 '특별반' 이수
4. 한국군의 유학 이수자 활용과 그 영향
5. 맺음말

## 1. 머리말

제2차 대전 이후 독립국가들은 국가수립 과정에서 군대의 필요성을 자각하였으며, 자국 군대를 증강하고자 강대국의 군사교육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리고 이는 군사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 본고는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50년대 한국군의 미국 군사유학 시행과 군사교육 체제의 재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 강사

지식·기술·이념이 전파되는 과정으로, 전후 독립국가들의 정치·사회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sup>1)</sup>

한국의 국가수립 과정도 이 경우와 맥락을 같이한다. 1950년대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군사·경제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하여 미국의 군사원조를 수용하면서 한국군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냉전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자유진영 국가들로부터 위신을 확보하고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확대하면서 한국군 운영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였다.

특히 6·25전쟁 시기 한국군 증강 문제가 대두하면서 한·미 양국 정부는 한국군 장교단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군사유학 시행을 합의하였다.<sup>2)</sup> 이때 한국 정부는 미국의 선진 제도와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통로로써 군사유학에 주목하였다. 반면 미국 정부는 군사유학을 통하여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한국 사회에 전파하고자 하였다. 즉, 1950년대 한국군의 미국 군사유학 시행은 한국 정부에게는 국가존립과 발전, 그리고 미국 정부에게는 냉전정책의 성패와 맞물려 있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기존 역사학계에서는 1950년대에 한국군이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하는 요인으로 군사유학에 주목하였다.<sup>3)</sup> 그리고 군사사(軍事史)학계에서는 한국군의 ‘미국화(Americanization)’ 측면에서 군사유학을 다루었다.<sup>4)</sup>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미국의 대한정책

1) 대표적인 연구로는 John J. Johnson, *The Role of the Military in Underdeveloped Countries*(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2) 참조.

2) 본 논문에서 ‘한국군’은 ‘대한민국 육군’에 한정됨을 밝혀둔다. 미국은 1950년대 한국군을 지상군 위주로 편성하고자 육군 장교에 집중하여 군사유학을 제공하였다.

3) 노영기, 「5·16쿠데타 주체세력 분석」, 『역사비평』 57호, 2001; 도진순·노영기, 「군부엘리트의 등장과 지배양식의 변화」, 정용욱 외,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와 지식인』, 선인, 2004.

4) Jong-nam Na, “Making Cold War Soldiers: The Americanization of the South

이라는 거시적인 구조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한국 측의 입장은 적극적으로 평가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해 주체와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측면까지 포괄한 연구는 한국군 연구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더불어 한국 측의 대응에 주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환기(喚起)하였다.<sup>5)</sup>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950년대 한국군의 확대·재편과정을 한국 정부의 국방정책 측면에서 분석하고, 한국군의 능동적인 역할을 규명하기 위하여 군사유학에 주목한다.

본론에서는 먼저 미국이 군사유학을 제공한 본질적인 의도를 살펴 본다. 군사유학은 동맹국 군대를 미군과 동일한 기준으로 만들고자 하였던 미국의 ‘동맹국 군대 표준화 구상’의 핵심 정책이었다. 군사유학을 매개로 이것이 한국군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유학생 선발 과정과 한국군 장교들에게 제공된 ‘동맹국 장교 특별반 과정(Special Allied Officers Course, 이하 ‘특별반’)’을 검토하여 군사유학의 절차와 내용을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군사유학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침을 분석하여 1950년대 한국 정부가 한국군 증강과 더불어 한국 사회 재건과 부흥이라는 국가운영의 차원에서 군사유학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규명한다.

본 논문에서 활용한 주요 사료는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문서 집단의 사료 중 주로 주한미군사고문단(U.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이하 ‘고문단’) 부관과(Adjutant Section)에서 생산한 문서들을 이용하였다. 고문단 부관과가 한국군 교육훈련과 군사유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 전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

Korean Army, 1945~1955”(Ph.D. dis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2006); 박동찬,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의 조직과 활동(1948~53)』,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5) 허은, 『미국의 헤게모니와 한국 민족주의: 냉전시대(1945~1965) 문화적 경계의 구축과 균열의 동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8.

구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국방 관련 지시사항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

1950년대 한국군이 생산한 문서는 육군 기록정보단으로 이첩되었으나 군사유학 관련 문서는 보존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술사료를 활용하여 문헌사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주요 구술대상은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10기와 생도 2기 출신 가운데 선정하였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일본군과 중국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없어 군사유학을 통하여 제대로 된 군사교육을 처음 경험하였다. 그리고 1950년대 군사유학의 중점인 ‘특별반’ 과정에 주요 대상자들로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데 적합하다.<sup>6)</sup>

## 2. 미국의 한국군 ‘표준화’ 구상과 방안

### 가. 군사원조와 동맹국 군대 ‘표준화’ 구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소련의 팽창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봉쇄정책을 추진하였다. 1947년 3월 트루먼 대통령은 소련의 동부 지중해 진출을 계기로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군사원조계획을 발표하고, 자유진영 국가들에 군사원조를 제공하기 시작

6) 구술 대상자는 황규만(육사10기, 1952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신위영(육사10기, 1952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박경석(생도2기, 1953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박보희(생도2기, 1952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장정열(생도2기, 1954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정우봉(생도2기, 1953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김운용(연락장교, 1953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으로 총 7명이다. 구술을 허락하고 연구 활용에 동의해주신 대상자들에게 감사드린다.

하였다.<sup>7)</sup> 미국의 군사원조는 1949년 중국 공산화와 소련 핵 실험 성공으로 크게 진전되었고, 같은 해 ‘상호방위원조법(Mutual Defense Assistance Act)’이 제정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도 군사원조를 제공하였다.<sup>8)</sup> 그리고 이 법에 근거하여 ‘상호방위원조계획(Mutual Defense Assistance Program)’을 시행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집단 방위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상호방위원조계획은 군사장비와 무기의 직접 이관, 군수물자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군사장비와 무기에 대한 기술교육 및 각종 군사훈련 등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구분되었다.<sup>9)</sup> 이때 이 계획이 장기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원조 대상국들이 미국의 군사교리를 이해하고 스스로 미국이 제공한 군사장비와 무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따라서 상호방위원조계획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사항(primary emphasis)은 동맹국 장교에게 미국의 군사교리와 장비, 무기에 대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었다.<sup>10)</sup>

7) 미국은 1947년 5월 그리스·터키 원조 법안(Greek-Turkey Aid Bill)을 마련하여 군사 장비를 이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스·터키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미국 세계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야기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Howard Jones, “A New Kind of War”: America’s Global Strategy and the Truman Doctrine in Greece(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Ch.1~3을 자세히 볼 것.

8) 박동찬, 앞의 논문, 2011, 25쪽. 군사원조 대상국들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세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제1그룹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회원국들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있었으며, 제2그룹은 그리스와 터키, 제3그룹은 한국, 이란, 필리핀이 포함되었다. 상호방위원조법 전문은 앞의 논문 <부록 3>을 참조.

9) Lyman L. Lemnitzer, “The Foreign Military Aid Program”, Proceedings of the Academy of Political Science, Vol.23, No.4, (1950), p.438. 램니처 소장은 1949년부터 1년간 미 국방부장관실 내의 군사원조실장을 역임하였다. 미 국방부는 상호방위원조계획의 집행 부서였으며, 군사원조실은 군사원조 업무 전반을 검토하였다.

10) Robert H. Connery and Paul T. David, “The Mutual Defense Assistance Program”,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XLV, No.2, (1951), pp.328~329.

미국은 크게 세 가지 형태의 군사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군사학 교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훈련팀을 현지로 파견하는 경우가 있었고, 군사장비와 무기 운용방법을 교육하기 위하여 기술자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동맹국 장교들을 미국 현지 군사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정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군사유학이었다.<sup>11)</sup>

군사유학은 미국의 동맹국 군대 ‘표준화(standardization)’ 구상에 핵심이면서, 상호방위원조계획의 성패(成敗)에 중요한 전제가 되었다. 표준화 구상은 군사훈련과 군사작전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미군의 조직과 절차, 기술을 기준으로 동맹국 군대를 재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동맹국 군대가 미국식 무기와 군사장비에 의존하게 만들어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원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에 있었다.<sup>12)</sup>

특히 6·25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대외 군사원조 정책이 크게 확대되면서 동맹국 장교들의 군사유학은 군사적 목적을 넘어서 미국의 대외정책 전반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갔다. 1954년 미 군사원조실장 대리를 역임한 윌슨(James K. Wilson, Jr.) 대령은 군사유학을 동맹국 정부의 대표자들과 장교단에 미국인들의 사고와 방식을 경험하게 만드는 과정으로서 ‘진정한 미래 이익을 위한 씨앗(seed of real future benefit)’으로 설명하였다.<sup>13)</sup> 즉, 미국은 군사유학을 통해 동맹국 장교단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였고, 이것은 동맹국에 미국의 대외정책을 지속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귀중한 통로(valuable channel)’를

11) James K. Wilson, Jr., “Development of Requirements for the Mutual Defense Assistance Program”(Washington, D. C: Industrial College of the Armed Forces, 1954), p.18.

12) Lyman L. Lemnitzer(1950), op. cit., pp.439~440.

13) James K. Wilson, Jr.(1954), op. cit., p.14.

확보하는 과정이었다.<sup>14)</sup>

이와 같이 트루먼 독트린 이후 미국의 세계 정책은 점차 소련에 대한 군사적 봉쇄에 중점을 두고 동맹국에 군사원조를 확대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1947년 당시 한반도는 미 합참의 극동방위선에서 제외되었고, 미 합참은 한반도에서 소련과 전면전 시 공군 중심의 핵무기 의존전략을 채택하고 있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한반도 문제를 UN에 상정한 이후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대한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48년 4월 포병화력과 중화기를 제외한 5만 명 수준으로 국방경비대를 증강하는 NSC 8이 채택되고 9월부터 주한미군의 철수가 시작되면서, 한국군 육성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철군의 대안으로써 군사원조에 주안점을 두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일방적으로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면서 미국에 대규모 군사원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원조는 NSC 8에 의한 수준으로, 1949년 6월 10만 명으로 급속히 팽창한 한국군은 무기와 군사장비가 매우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트루먼 대통령에게 추가 원조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sup>15)</sup>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보완조치로써 대규모 군사원조 보다는 최소한의 개입정책의 일환으로서 한국군의 군사교육과 훈련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한국에 군사고문단을 설치하여 한국군의 조직·훈련 및 무장에 관여하였다.<sup>16)</sup> 그리고

14) Ernest W. Lefever, "The Military Assistance Training Program",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424, (1976), p.92.

15)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Rhee) to President Truman", Aug 20 1949, FRUS, 1949, Vol.VII, pp.1075~1076; "President Truman to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Rhee)", Sep 26 1949, FRUS, 1951, Vol.VII, pp.1084~1085.

16) 고문단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는 조이현, 「1948~1949년 駐韓美軍의 철수와

소수의 한국군 장교들에 군사유학을 제공함으로써 한국군의 훈련과 더불어 한국군이 미국식 군대의 골격을 갖추도록 만드는 데에 집중하였다.<sup>17)</sup>

그러나 1949년 후반 미국의 대외정책이 재무장과 적극전략으로 선회하면서, 미국 내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부흥을 위해서 한국의 방위가 중요하다는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재편론’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50년 1월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의 체결로 추가 원조에 대한 법적적인 조건이 마련된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는 대한 군사원조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따라서 1950년 6월에 접어들면서는 한국에 대한 추가지원계획이 사실상 확정되었다.<sup>18)</sup>

#### 나. 한국군 증강 논의와 군사유학의 확대

6·25전쟁은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 정책에 일대 전환을 야기하였다. 미국은 개전 초기 미군 병력만으로 북한군을 상대하기 역부족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에 현실적인 차원에서 한국군의 병력을 충원하고 무기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1950년 10월 중공군 개입 이후 한국군은 급속히 붕괴되었고, 이는 유엔군 전선 전체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1951년 5월 NSC 48/5로써 미국의 전쟁 전략이 ‘휴전’으로 기울면서, 미국은 38도선을 확보하는 선에서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외국군을 철수하며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여 한국군을 증강한다는 새로운 종전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駐韓美軍事顧問團의 활동],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참조.

17) 1948년 8월 최초로 6명의 한국군 장교들이 미 보병학교에 파견되었다. 이들은 10개월간의 군사교육을 이수하고 한국군 지휘관들에게 미국식 무기사용과 미군 편제, 전술을 교육하였다. 그리고 1950년 4월에는 33명의 장교들이 미군부대의 행정과 훈련을 시찰하기 위하여 주일 미군기지로 파견되었다.

18) 박동찬, 앞의 논문, 2011, 141~142쪽.

한국 정부는 휴전협정 체결이라는 미국의 종전정책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지만 한국군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군사지원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입장은 같았다. 실제 이승만 대통령은 1951년 3월부터 공군 증강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었다. 그는 미 제5공군에서 최소한 30대의 T-6 훈련기를 지원하고, 주일 미 공군기지와 미국 군사교육기관에서 한국 공군 장교들에게 위탁교육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sup>19)</sup> 이는 공군 중심의 군사력을 확충하여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군사원조를 획득하고자 하였던 의도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미 8군은 육군의 전투효율성을 향상시켜 빠른 시간 내에 눈에 두드러진 전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육군의 화력을 증강하는 방안과 교육훈련 체계를 보강하기 위하여 육군 장교들의 군사유학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sup>20)</sup> 미국 내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의 공군증강 계획보다는 육군 중심의 군사력 건설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한국 공군에 대한 지원은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sup>21)</sup>

이와 같은 미국의 구상은 1951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한국군 제3군단의 현리전투 패전을 계기로 미 8군사령관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장악하면서 한국군 증강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지도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군의 증강은 미 8군의

19) Headquarters, Fifth Air Force, to the John J. Muccio, 'Request of President Syngman Rhee', 17 Mar 1951, RG 330, Records of the Office of Military Assistance, Entry 18, Project Decimal File, Box 68, Korea 091.3-400, 1950.

20) 6·25전쟁 중 육군의 재편성과 증강 정책에 대해서는 나종남, 「한국전쟁 중 한국 육군의 재편성과 증강, 1951~'53」, 『軍史』第63號, 2007, 228~249쪽 참조.

21) Major General S. L. Scott, Director, Office of Military Assistance, to the Director,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Department of State, 'MDA Training of South Koreans', 29 May 1951, Undated, RG 330, Records of the Office of Military Assistance, Entry 18, Project Decimal File, Box 68, Korea 091.3-400, 1950.

주도 하에 육군에 집중하는 방안으로 시행되었으며, 군사유학은 한국군 증강 정책이라는 전체 구도 속에서 재개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미국은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군사유학에 주목하였다. NSC 48/5 채택 이후 미국의 종전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점은 6·25전쟁의 확산을 방지하고, 자유진영에서 위신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국방 정책과 한국군 운영에 보다 깊숙이 개입할 수 있어야 하였다. 따라서 앞 절에서 살펴본 동맹국 군대 표준화의 측면에서 한국군 장교들의 대규모 군사유학 시행은 미국이 한국군에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적합한 정책이었다.

군사유학이 재개되고, 확대 시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것이 미국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51년 5월 한국군 교육훈련 개선의 담당자로 임명된 챔페니(A. S. Champeny)는 육군 작전참모부장 테일러(M. D. Taylor)와 한국군 장교들을 위한 ‘특별반’ 개설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때 교육 인원으로서 미 보병학교에서는 150명을, 포병학교에서는 100명을 제안하였고 이는 계획에 그대로 반영되었다.<sup>22)</sup> 이때 챔페니가 한국에 귀국한 날짜가 7월 1일이므로 테일러와는 늦어도 6월 중에 만났다고 볼 수 있다.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250명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그리고 미 극동사령부는 대규모 군사유학의 성과를 들며 군사원조실에 이와 같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sup>23)</sup> 이에 대해 군사원조실은 회계연도 1953년의 군사유학 시행에

22) Brigadier General A. S. Champeny, AUS, to Commanding General, Eighth Army, ‘Agreements Relative to Groups of Koreans Going to the United States for Attendance at Service Schools’, 24 July 1951, RG 554, A. G. Decimal Files, 1948~’53, Box 57.

23) Brigadier General, GS, Deputy ACofS, G-4 for Foreign Military Aid, to the Director, Office of Military Assistance, Secretary of Defense, ‘Training of

소요되는 자금을 인도차이나 의료계획(Indochina Medical Program)에서 전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sup>24)</sup> 이는 6·25전쟁 이전 주한 미 대사와 상호방위원조계획 조사단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대한 군사원조가 현실화되지 못하였던 것과 비교할 때, 미국의 대한 군사정책이 명확하게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대규모 군사유학은 미국의 주도 하에 추진되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 정부도 군사유학 시행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었다. 1951년 5월 22일 이승만 대통령이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에게 하달한 ‘장교 훈련에 관한 건(국방 제44호)’을 살펴보면, 이 시기 한국 정부는 UN군 사령부에 육군 장교 만여 명을 훈련시키는데 필요한 미 8군 장교들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알 수 있다.<sup>25)</sup> 즉, 이승만 대통령은 언젠가는 한국군 스스로 국방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육군 장교들에 대한 군사교육과 훈련을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취급하였다.

그리고 5월 22일과 30일 사이 UN군 측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장교 50명에 대한 군사유학 시행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은 능력 있는 장교들을 선발하여 군사유학을 보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면서 국방부장관에게 이 제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다.<sup>26)</sup> 이렇듯 대규모 군사유학의 시행은 한·미

---

ROKA Officers in ZI Service Schools Under Auspices of MDAP’, 18 Nov 1952, RG 330, Records of the Office of Military Assistance, Entry 18, Project Decimal File, Box 69, 111 FY 52 Korea.

24) Major General G. H. Olmsted, Director, Office of Military Assistance, to the Director for Mutual Security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Attendance of ROK Army Officers at U. S. Army Service Schools’, 9 Dec 1952, RG 330, Records of the Office of Military Assistance, Entry 18, Project Decimal File, Box 69, 111 FY 52 Korea.

25) “將校 訓練에 관한 件(大秘指 國防 第44號, 1951. 5. 22)”, AA0000360,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사료.

26) “將校 米國廻에 派遣의 件(大秘指 國防 第47號, 1951. 5. 30)”, AA0000364,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사료.

양국 정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있었기 때문에 보다 신속히 재개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승만 대통령은 군사유학의 효과를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전후 부흥사업과도 연계하고 있었다. 전쟁 기간 군사유학은 전투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보병, 포병 등 전투병과 교육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점차 공병, 의무, 부관, 병기, 병참, 수송과 같이 사회 재건사업 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행정병과 교육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일차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한국군의 규모가 확장되면서 부대 관리와 군수 지원의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하여 사회 재건이 시급한 국가시책으로 대두하면서, 한국 정부는 군사유학 이수자들을 보다 광범하게 활용하고자 그 분야를 확대시켜 나갔던 것이다.<sup>27)</sup>

한국 정부의 구상은 당시 민간 유학생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살펴보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민간 유학생들이 인문학 보다는 자연과학에 더 치중하면서 장차 부흥사업에 역점을 둘 것을 지시하였다.<sup>28)</sup> 그리고 유학생을 ‘공적 사명을 가진 해외여행자’로 간주하여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포함한 귀국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sup>29)</sup> 이렇듯 한국 정부는 1950년대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을 극복하는 데에 있어서 유학 이수자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sup>30)</sup> 특히 1950년대는 도미

27) 이에 대해서는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Department of the Army, 'Brochure for General James A. Van Fleet', 17 May 1954, RG 330. Records of Other Special Assistants, Entry 185, Van Fleet Files, Box 14, Korea-Proposed Infantry Division 참조.

28) “獎學金 留學生 派遣에 관한 件(大秘指 文外 第7號, 1952. 9. ■)”, AA0000471,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사료.

29) “海外派遣 公務員 等 公的 外國旅行者의 歸還報告書 作成에 관한 件, 1953. 4. 25”, AA0000737,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사료.

30)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유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적으로 미국 정부가 부담하

(渡美) 유학 장교의 수가 민간 유학생 5,029명을 상회하는 10,026명에 달하였으므로,<sup>31)</sup> 유학생 활용에서도 군사유학 이수자들에 보다 주안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 3. 한국군의 유학생 선발과 ‘특별반’ 이수

#### 가. 유학생 위임선발과 고문단의 관여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유학은 입교 대상자의 계급에 따라 미 지휘참모대학과 병과학교의 고등군사반 및 초등군사반 과정으로 구분된다. 지휘참모대학과 고등군사반은 한국군 장군과 영관장교들을, 초등군사반은 위관장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1950년대 군사유학의 ‘확대’는 한국군 위관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초등군사반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초등군사반 유학생 선발 과정을 통하여 군사유학의 목적과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유학생 선발과 검증의 책임은 현지에 주둔하는 미군에 주어졌다. 미 육군부 정보처는 외국군 장교 선발 지침 및 입교 안내문을 해외 각국에 전달하였다.<sup>32)</sup> 안내문은 유학인원 보고 일정, 입교 및 수료일, 입교 복장과 필요한 장비 및 물품을 소개하는 내용을

여 한국 정부의 재정에 부담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民軍 留學生 雜費 問題의 件(大秘指 財務 第14號, 1952. 12. 26)”, AA0000488,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사료; “留學 將校 私用費 援助 獲得의 件(大秘指 國防 第5號, 1953. 3. 20)”, AA0000507,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사료).

31) 조성훈, 『한미군사관계사의 형성과 발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161쪽.

32) Director of Intelligence, to Chief, U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OK, ‘Training Foreign Nationals at U.S. Army Schools, 1 Jan 1950 to 30 June 1950’, 6 Dec 1949, p.1(Incl 2), RG 338, K MAG, Adjutant General, Decimal File, 1948~’53, Box 11.

담고 있다.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공식적으로 주재하게 된 군사고문단이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한국의 육군본부가 고문단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시험은 3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는 필기시험으로 육군본부에서 각 사단, 군단 및 지구별로 시험관을 파견하여 국어, 영어, 수학, 국사 과목을 평가하였다.<sup>33)</sup> 필기시험에 합격한 장교들은 2단계인 구두시험 및 신체검사 실시를 위하여 육군본부에 집결하였다. 구두시험은 ‘민주주의가 무엇이며,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와 같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함께 영어 수준을 확인하는 방식이었고, 신체검사로 X-Ray 촬영을 실시하였다.<sup>34)</sup>

미 보병학교 유학생의 경우 최종적으로 150명을 선발하였는데, 2단계 시험을 통해 대략 170명 정도를 선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육군본부로 재집결하였으며, 한국군 방첩대의 신원조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발될 수 있었다.

사상검증은 지나쳤고, 약간 한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인민군 포로가 되었다 왔거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안 되었어. 내가 합격했는데도 빠져서 항의하니까 방첩대에서 뭐가 넘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인민군한테 부역한 것도 아닌데 나를 빼다니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 빠졌어. 그래서 사상검증이란 말은 지나치지만은 한국군 방첩대에서 리스트가 올라오면 빠지는 것은 사실이야. 일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었어. 내 사례로 봐서.<sup>35)</sup>

사상검증은 170명을 전부 스캐닝 해. 서류상으로. 경력, 과거의 일,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는가. 말하자면 조사를 해. 그 조사는 말하자면 정보적인 조사지. 뒤에 숨어서. 나중에 와서 ○○○ 대위 나오시오, ○○○ 소령 나오시오

33) 신위영(육사10기, 1952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구술; 장정열(생도2기, 1954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구술.

34) 김영선, 『백마고지의 광영』, 팔복원, 1997, 114쪽; 정우봉(생도2기, 1953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구술.

35) 박경석(생도2기, 1953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구술.

하고 방첩대에서 데려가. 그러고는 오지 않아. 나중에 알고 보니 학교 다닐 때 조금 좌경에 가담했던 인원들을 걸러냈어. 그래서 150명이 된 거지.<sup>36)</sup>

특무부대에서 신상정보 조사한다고. 다 써내라고 한다고. 그래서 사상이니 집안에 뭐 반 한국인 사람들이 있는지 조사한다고.<sup>37)</sup>

신원조회를 통해 20여 명을 불합격시켰다는 사실은 신원조회가 비교적 철저히 실시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록 군사유학 지원자들이 장교 신분으로 전쟁에 참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경력이나 반공의식 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하였다.

신원조회까지 합격한 인원들은 육군본부 보충대대에서 소양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귀국한 유학생 및 통역관 등 도미 경험자들이 실시하였다.<sup>38)</sup> 교육 내용은 미국의 역사와 문화, 식사예절과 수세식 변소의 사용법 등 미국 사회와 미국인들의 생활양식이 중점이었고, 생활 및 군사 영어도 교육되었다.<sup>39)</sup> 이들은 소양교육 기간에 미 8군으로부터 합격 증명서와 같은 ‘초청여행명령(Invitational Travel Order)’을 발급 받았으며, 명령을 참고하여 유학 준비를 완료하였다.<sup>40)</sup>

이와 같이 한국군 육군본부에서 선발 시험을 주관하였지만 그것은

36) 정우봉(생도2기, 1953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구술.

37) 장정열(생도2기, 1954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구술.

38) 이치업, 스티븐 엠·팔프 공저, 『Call Me “Speedy Lee” 번개장군』, 원민, 2001, 168쪽.

39) 백행걸, 『미완성의 성취』, 팔복원, 1994, 87쪽.

40) 명령의 내용은 차량 소지와 가족동반, 급여지급 기준, 입·출국 시 주의사항 정도였다.(1st Lt. Harold L. Durrett, Asst. Adjutant General, K MAG, to Individuals indicated in this order, ‘Individual Orders to the ZI’, 26 Sep 1953, RG 319,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3, Operations, Academic Training Records of Individual Foreign Nationals, 1952~’54, Box 11).

고문단의 업무를 일선에서 대신 수행하는 수준이었다. 고문단은 미 병과학교에 대한 한국군의 각종 요청 사항들을 검토하고 결심하여 미 육군부에 요청하였다. 그리고 군사유학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유지하고 진행 상황을 월간 보고서 형태로 육군부에 제출하였다.<sup>41)</sup>

특히 고문단은 유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한국군 장교들의 보직과 인력 순환을 고려하여 인원을 할당하였다. 예를 들면 포병학교가 100명의 인원을 한국군에 할당하면 고문단은 할당된 100명을 한국군 포병학교 교관 14명, 야전부대 인원 63명, 포병학교 졸업 예정자 23명으로 세분화하였다.<sup>42)</sup> 그리고 한국군 인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유학생들이 교육을 마치고 복귀한 직후 교육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직책에서 근무하도록 배치하였다. 1952년 미 포병학교 초등군사반 과정을 이수한 이연호의 증언은 고문단 차원에서 군사유학 이수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대위로 교육받았다고 작전주임을 하게 되었고 같이 교육 갔던 소위 중위들도 대대로 가서 작전관을 해서 부대마다 전화하면서 잘 통하게 되었다. (중략) 아마도 Mayor 대령이 지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 포병을 전방에 배치하면서 포병의 고문관으로 Mayor 대령이라고 인사권까지 갖고 있었다. 포병감은 행정처리만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교육과 기술을 지도하였다.<sup>43)</sup>

이는 고문단이 한국군의 교육기관과 야전부대 사이의 장교인력 순환을 비롯하여 한국군 장교의 양성(養成) 및 보수교육(補修教育)과

41) Headquarters,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Advisor's Procedure Guide", 21 June 1956, p.19, RG 334, Records of the U.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KMAG), Entry 204, USMAG Korea.

42) G3, Adv, to C/S, KMAG, 'Student Officers to US Schools', 22 Aug 1951, RG 338, KMAG, Adjutant General, Decimal File, 1948~'53, Box 40.

43) 육군본부, 『포병과 6·25전쟁 증언록』, 2012, 298쪽.

보직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록 한국의 육군본부가 고문단으로부터 유학생 선발 업무를 위임받았지만, 그것은 고문단의 영향력이 관철되는 구조 속에서 시행된 것이었다. 그리고 고문단은 이를 통해 한국군 장교단의 인사·교육 업무 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

### 나. 미국식 군대개념과 문화의 수용

유학생 선발에 최종 합격한 인원들은 6개월 간의 초등군사반 교육을 이수할 수 있었다. 1950년대 군사유학의 실질적인 확대가 초등군사반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미국이 군사유학을 제공한 본질적인 의도와 더불어 미국이 군사유학을 통해 한국군 장교단에게 요구하였던 것은 무엇인지, 나아가 한국군 운영에 대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중요하다.

〈표 1〉 미 포병학교 유학단 인원 규모 및 계급 구성 (단위: 명)

구분	제1차 (‘51.10~’52.3)	제2차 (‘52.4~9)	제4차 (‘53.3~9)	제5차 (‘53.11~’54.4)	제6차 (‘54.4~’54.8)	제8차 (‘55.10~’56.3)
위관	91	92	116	105	104	123
영관	7	17	7	8	7	5
계	98	109	123	113	111	128

출처: Final Processing Roster(Artillery Students, US Schools), 6 Sep 1951, RG 554, A.G Decimal Files 1948~53, Box 40; U.S. Artillery School, 1953a; 1953b; 1954a; 1954b; 1955, *US Artillery School Allied Officers Course*(渡美留學記) 참조.

주 1) ( )는 유학단별 교육기간이다.

주 2) 도미유학기는 미 포병학교 유학단 기수별로 제작한 앨범이며, 미 포병학교 전자 도서관(Morris Swett Library Digital Collections & Archives)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재 2, 4, 5, 6, 8차 유학단의 앨범이 탑재되어 있다.

먼저 한국군 장교들에게 제공되었던 교육의 정식 명칭이 ‘초등군사반’이 아닌 ‘동맹국 장교 특별반 과정(Special Allied Officers

Course, 이하 ‘특별반’)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별반 과정은 미군 장교들에게 제공되는 초등군사반 과정과 비교하였을 때 소대 지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그 교육 목적은 동일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군사유학의 의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철시키고자 초등군사반 과정을 일부 수정한 ‘특별반’ 과정을 한국군 장교들에게 제공하였다.

구술을 토대로 특별반 과정을 유추해보면, 이는 화기학, 전술학, 학술 분야로 구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화기학에서는 수류탄, M1·카빈·브라우닝 소총, 기관총, 박격포에 대한 이론교육과 기록 사격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전술학은 분대~대대급 공격·방어전술과 공병, 기갑 등 보병 이외의 병과에 대하여 교육하였고, 소대 지휘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학술은 군대 예절, 통솔법, 응급처치, 차량학 등의 기초 과목과 대대급 인사·정보·작전·군수 업무를 가르치는 참모학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내용은 1954년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교육내용은 1951년 군사유학이 재개된 이래 점차 한국군의 실정에 맞게 조정되었다. 이때 교육 내용의 변화 양상은 그것이 미국의 군사유학 제공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1차로 특별반을 수료한 황규만과 5차로 특별반을 수료한 장정열의 구술 내용을 비교해보면 처음에는 미군 장교들의 초등군사반 과정이 한국군 장교들에게 그대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군 교리는 순 제2차 대전 당시 유럽의 평지에서 쓰던 교리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쳤으니까. (중략) 그냥 과거에 미군 장교들 초등군사반, 고등군사반 가르치던 스케줄 가지고 그냥 가르친 거야.<sup>44)</sup>

맨 처음에 1기서부터는 한국 실정을 다 모르니까 미국식으로 가르친 것 같더라고.

44) 황규만(육사10기, 1952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구술.

우리 때는 한국의 편제, 한국의 장비능력, 전투능력 같은 거 다 알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시켰다고.<sup>45)</sup>

이후 몇 번의 유학을 거치면서 교육 내용은 조정되었다. 이는 2차로 특별반을 수료한 박보희와 4, 5차로 특별반을 수료한 박경석, 장정열의 증언을 검토하여 확인할 수 있다.

M1소총부터 시작해서 기관총, 기관포, 박격포, 105밀리 야포까지. 사격은 직접 훈련하고. M1소총은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중략) 기관총이나 박격포는 직접 사격하지 않고. 다 내어 놓고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한국군이 가지고 있던 화기도 많이 있었고 무반동총처럼 미처 못 가지고 있었던 화기도 소개하고 그랬습니다. (중략) 군대예절은 한국에서의 초보 교육에 의해 맡겨졌기 때문에.<sup>46)</sup>

리더십은 굉장히 심층까지 가르치더라고.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실습도 하고. 어느 지휘관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실습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 단순한 원칙론 정도. 응용 및 실습이 없었어. 우리는 이론, 미국은 실습이 많아. 다른 과목들도 실습위주로 되어 있어. 그게 특징이라고. 굉장히 실용적인 교육이구나. 당시에는 상상을 못했던. 그 넓은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전부 다 해.<sup>47)</sup>

맨 처음 배운 것이 군대예절서부터 배운 것 같아. (중략) 경기관총은 직접 나와서 쏘는 거야. 우리나라에 편제되어 있는 거야. 로켓도 직접 쏘본다고. (중략) 중대 전술훈련까지는 전부 직접 실습을 한다고.<sup>48)</sup>

구술을 통해 한국군의 실정에 맞게 정비되는 내용에서 두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유학생들은 점차 한국군에 편제된 장비와 화기에 대해서만 교육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둘째, 본격적인

45) 장정열(생도2기, 1954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구술.

46) 박보희(생도2기, 1952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구술.

47) 박경석(생도2기, 1953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구술.

48) 장정열(생도2기, 1954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구술.

군사학 교육에 앞서 군대예절, 리더십 등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관련된 과목이 추가되었다. 이는 특별반 과정이 초등 군사반 과정에 장교후보생 과정(The Infantry Officer Candidate Course)을 접목한 것임을 짐작하게 해준다.

군대예절은 장교후보생 과정에서 훈육관(Tactical Officer)들이 후보생에게 가르치는 기초 과목으로 병영에서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절을 의미하며 명령과 복종, 군인의 용모 및 언행, 상호 인사 및 경례, 군 기강, 병영 내 공공시설 사용법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군 장교들에게 요구하였던 것은 단순한 군사 지식의 습득이 아닌 기본적인 행동과 마음가짐에서부터 미군 장교단의 관례와 규범을 체득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49)</sup>

이러한 사실은 미국이 군사유학을 통해 한국군 장교들에게 군사 지식뿐만 아니라 미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군대가 ‘미국식 군대개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의도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준다.<sup>50)</sup> 이것은 한국군의 교리, 조직, 문화가 미군의 기준과 가치를 따르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 군대를 경험하지 않고, 해방 이후 단기간이지만 미국식 교육을 받은 젊은 위관장교들을 군사유학의 주요 대상으로 선정 하였으며, 교육 내용도 이를 고려하여 편성하였던 것이다.

49) 미 장교후보생 과정에서 훈육관은 교육 대상자들에게 미 육군의 본보기(example)를 제공하고, 그들이 동질적인 팀(homogeneous team)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The Infantry School, Fort Benning, Manual For Tactical Officers, 1953, pp.1~7). 이에 대해 구술자들은 공통적으로 미 교관과 고문관들을 보며 장교의 본보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술회하였다.

50) 이에 대해 나중남은 군사유학이 한국군 장교단의 미국화를 위한 패키지 플랜(Package Plan)이었다고 평가하였으며, 한국군이 ‘미군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군대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았다(Jong-nam Na(2006), op. cit., pp.201~202). 그리고 허은은 미 본토에서 실시하는 한국군 교육 계획을 한국군 장교들에게 ‘미국의 이해가 관철되는 정치 전개를 거스르지 않는 군대상’을 주입하는 과정으로 평가하였다(허은, 앞의 책, 2008, 210쪽).

군사유학은 한국군 장교에게 군사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우선 유학 장교들은 공식 일정으로서 견학이나 초청 행사를 경험하였다. 제1차 유학단의 경우, 미 육군부가 워싱턴 D.C.의 알링턴 국립묘지, 백악관, 국방부를 방문하는 일정을 제공하였다.<sup>51)</sup> 미 병과학교에서는 지역주민의 자택을 방문하거나 교회 예배 참석을 공식화하기도 하였으며, 간혹 지방 방송국과 지역 신문사의 인터뷰를 주선하기도 하였다.<sup>52)</sup> 그리고 공식 일정 외에도 주말과 연휴 기간에는 개별 여행을 통하여 미국 사회와 접촉할 수 있었다.<sup>53)</sup>

그러나 이와 같은 군사유학을 통해 모든 장교들이 미국 사회와 미군에 대하여 동일한 인식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이들의 인식은 개인의 특정한 경험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형성되었다. 예를 들면 같은 사건에 대해 황규만, 박경석의 인터뷰 내용은 상반되었다.

그때 대구 육군본부 강당에서 잘 때, 전부 작업복밖에 없잖아. 그거 다 벗어던지고 카키복으로 새 옷을 두 벌씩 찼다고. 근데 왼쪽 가슴에 S자 도장이 찍혀 있었어.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 부분에도 S라고 도장이 찍혀 있었어. 처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 새것이니까 좋아서 입은 거야. 근데 샌프란시스코 도착해서 미국 기자들이 막 몰려오잖아. 그런데 개네들이 봐도 이상하잖아. 군복에 S자가 박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응급적으로 대답한 것이 South Korea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Salvage였던 거야. 구호품. 그러니까 미군 이놈들이 소 귀에 Earmark 찍는 것처럼 도장을 찍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자존심 상했지. 그냥 주지 말아야. 소도 아니도. 그래서 미 보병학교 피엑스에서 그 옷은 다 내버려버리고 새 군복으로 다 샀다고. 그 사건 이후로 전부 반미주의자가 되었어. 전부.<sup>54)</sup>

51) Colonel Frank Dorm, Chief, PI Division, to Deputy Chief of Staff for Operations Administration, 'Itinerary for ROK Officers', 21 Sep 1951, RG 319, Chief of Staff, Decimal Files, 1951~'52, Box 742.

52) 이계홍, 『장군이 된 이등병』, 화남, 2005, 221~223쪽.

53) 채명신, 『死線을 넘고 넘어』, 매일경제신문사, 1994, 291~293쪽; 이근영, 『敗者の勝利』, 進明文化社, 1996, 54~56쪽.

미국 보병학교에서는 미국 장교들과 똑같이 대우했어. 똑같은 식당에서, 똑같이 150달러(유학 기간 중 미국이 한국군 장교에게 지급한 한 달 급여 - 인용자 주). 그러니 감동한 거지. 당시 한국군이 샌프란시스코 부두에 내렸을 때는 구경거리였지. 군화도 없어서 정복에 워커구두.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차별을 안두더라고. 나도 S자 붙은 거야. 근데 그거야 할 수 없지 뭐. 난 뭐 그냥 받아들였다고. 고맙다고 생각했어.<sup>55)</sup>

한국군 위관장교들이 군사유학을 통해 갖게 된 미국 사회와 미군에 대한 감정은 매우 다양하였으며, 모두 친미주의자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sup>56)</sup> 그러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군사유학이 한국군 초기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공감하였다. 그리고 미국 사회와 미군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과는 별개로 미국에서 배운 교육 내용을 상당히 신뢰하였으며, 미군의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가졌다.<sup>57)</sup> 유학 이수자들의 이러한 인식은 이들이 귀국한 뒤 미국의 군사교육 내용을 한국군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나가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54) 황규만(육사10기, 1952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구술.

55) 박경석(생도2기, 1953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구술.

56) 군사유학을 이수한 한국군 장교들의 다양한 대미 인식과 이와 관련된 각종 사례에 대해서는 그렉 브라진스키 지음·나종남 옮김, 『대한민국 만들기, 1945~1987: 경제 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미국』, 책과함께, 2011, 160~167쪽 참조.

57) 이와 관련해서 1954년 미 보병학교 고등군사반 과정을 이수한 정승화는 ‘그들의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생활화된 민주주의적 태도는 우리에게 생소한 것이어서, 그런 점을 많이 배웠다. (중략) 이 차이를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많이 배웠다’고 회고하였다(정승화 지음, 이경식 정리·대필, 『대한민국 군인 정승화』, Human & Books, 2002, 235쪽).

## 4. 한국군의 유학 이수자 활용과 그 영향

### 가. 유학 이수자 배치와 군 조직개편

한국군은 유학 이수자들을 활용하여 미국식 군사교육을 빠르게 도입해 나갔다. 한국군은 한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 아래 유학 이수자들을 중용(重用)하였다.<sup>58)</sup> 유학 이수자들은 계급에 비해 상위 보직에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1952년 미 포병학교 초등군사반을 이수한 김춘배는 ‘교육 후 나는 다시 제50포병대대로 복귀해서 중위인데도 미국 교육받았다 해서 대대 작전장교 임무수행을 하였다.’고 술회하였다.<sup>59)</sup> 대대 작전장교는 대위 보직으로서, 김춘배는 자신의 계급보다 한 단계 높은 계급이 수행하는 보직을 맡았던 것이다. 박경석의 경우 1953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을 수료하고 소령으로 진급하였으며, 이때 보직은 중령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제2훈련소 작전과장과 감사과장 자리였다.<sup>60)</sup>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관심과 한국군의 지원이 있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유학 이수자들 스스로 미국의 군사교육을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초등군사반 교육의 가장 큰 소득이 ‘교수법(教授法)’이었다는 황규만, 신위영, 김운용의 증언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58) 당시 한국 정부는 군사유학의 성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1955년 6월 한국 정부는 유학을 마친 젊은 장교들을 ‘한국군 증강의 핵심체’로 보면서, 미 지휘참모대학, 보병학교, 포병학교 교장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할 계획을 추진하였다. (“미포병학교 ‘윌리엄’ 소장 외 2명에 대한 무성태극훈장수여의 건 품의”(국무원 사무국장, 1955. 6. 8)”, AA0001549,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사료); 이는 한국 정부가 미 군사교육기관들의 역할을 6·25전쟁에 참전한 야전부대들의 전과와 동등한 의미로서 평가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59) 육군본부, 앞의 책, 2012, 123쪽.

60) 박경석(생도2기, 1953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구술.

미국에서의 가장 큰 소득은 교수법이야. 이게 가장 큰 재산이야. 그 전에는 교수법이라는 것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게 없었거든. (중략) 교안이든 교재든 다 가져왔지. 교재 거기서 쓰던 거 몽땅 다 가져왔지. 그래서 그때 처음 강의록도 작성하는지 알았어. (중략) 예를 들면 화기학에서 그 전에는 기관총, 소총 있으면 다 진열해 놓고 기관총이면 기관총 설명하고 소총이면 소총 설명하고 이런 식이었던 말이야. 근데 미국 가서 보니까 지금 딱 설명하는 것 외에는 보자기로 다 가려놓고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소총이면 소총만 딱 벗겨놓고 설명하였다고. 왜냐면 학생들이 소총에만 집중하겠지. 다 그런 것들까지 배웠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궁금하지.<sup>61)</sup>

교육 방법이 아주 좋아. 통역관을 대동했잖아. 예습교재를 한글로 통역관들이 2~3일 전에 내줘. 교관이 지껄이면 통역관이 통역을 하니깐. 바로 통역관이 있으니깐 불편한 점이 없지. 교육 방법이 좋아. 그렇지 교수법이지. 예습교재를 주고 꼭 시범을 먼저 시키고. 마지막에는 토론을 하고. 그런 것이 당연한 거지만 그 방법이 좋구나 하는 것. 그런 것 느꼈지.<sup>62)</sup>

교수법도 조금 하고. (중략) 아까 얘기한 강의·시범·실습·시험. 시험도 멀티 플 초이스라고 다수 선택형하고, OX 두 가지. 한국에서는 내 초등군사반 다닐 때는 그렇게는 안했었어.<sup>63)</sup>

이처럼 군사유학 이수자들은 강의·시범·실습·시험으로 이어지는 미 병과학교의 교수법이 매우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교육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다. 한국의 젊은 장교들은 대부분이 별도의 군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고, 일부 인원들이 한국에서 군사교육을 받았다 해도 그것은 김운용의 회고에서처럼 획기적으로 인식될 정도는 아니었다. 그들은 미국식 교수법을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보았으며 군사교육에 있어서의 표준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귀국 후 군사교육기관에 배치된 인원들의 경우, 가장 먼저 교수법과 강의록부터 미국식으로 수정하기 시작하였다.

61) 황규만(육사10기, 1952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구술.

62) 신위영(육사10기, 1952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구술.

63) 김운용(연락장교, 1953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구술.

이때, 앞서 김춘배의 증언에서 알 수 있듯이 군사유학 이수자들은 주로 야전부대 작전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에 임명되었다. 유학 이수자들의 보직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1952년부터 1954년까지 한국군은 유학 이수자들을 주로 야전부대와 군사교육기관에서의 교육 업무에 배치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2>는 1952년부터 1954년까지 미 보병학교 및 포병학교 초등군사반 이수자들의 귀국 후 최초 보직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1952~1954년 미 보병·포병학교 초등군사반 이수자 귀국 후 보직

계급/성명	미 보병학교 이수 후 보직	계급/성명	미 포병학교 이수 후 보직
중령 이○영	사단 작전참모	중령 정○완	포병학교 전술학 과장
소령 박○식	5군단 작전과장	대위 이○호	1포병단 작전주임
소령 박○인	제1훈련소 교관	대위 최○원	5사단 26포병대대 작전·정보주임
소령 양○식	제2훈련소 화기학과 부과장	대위 동○근	5사단 26포병대대 작전주임
소령 최○택	보병학교 정보 교관	대위 한○진	7사단 93포병대대 작전주임
대위 정○봉	5군단 교육과장	대위 최○석	12사단 66포병대대장
대위 신○영	수도사단 1연대 1대대 작전교육관	대위 문○구	포병학교 전술학과 교관
대위 김○동	5사단 35연대 작전과장	대위 김○돈	육군사관학교 전술학과 교관
대위 김○배	27사단 작전처 교육과장	소위 고○환	1포병단 51포병대대 작전주임
대위 김○용	27사단 79연대 정보과장 * 주 1)	중위 신○근	1포병단 작전보좌관
대위 이○환	28사단 연대 작전과장	중위 김○영	20포병단 작전보좌관
대위 김○현	제1훈련소 전술학과 공격 교관	중위 강○영	6사단 27포병대대 작전장교
대위 탁○길	제1훈련소 화기학과 M1소총 교관	중위 한○진	7사단 93포병대대 작전주임
대위 박○석	제2훈련소 정보교관	중위 김○배	8사단 50포병대대 작전장교
대위 김○영	제2훈련소 교관	중위 박○연	11사단 20포병대대 작전주임
대위 장○열	보병학교 전술학과 방어 교관	중위 오○창	포병학교 통신교관
대위 함○영	보병학교 전술학과 교관	중위 이○구	포병학교 교도대대 작전보좌관
대위 황○만	보병학교 화기학과 기관총 교관	소위 전○식	9사단 30포병대대 작전주임
대위 이○우	보병학교 화기학과 자동소총 교관		
대위 김○진	하사관학교 교관		
중위 백○결	7사단 작전처 작전교육 과장		
중위 안○준	28사단장 전속부관		
중위 임○재	제1훈련소 전술학과 분대방어 교관		
중위 김○오	제2훈련소 화기학과 사격술 교관		
중위 유○호	제2훈련소 정보 교관		
중위 박○희	보병학교 화기학과 M1소총 교관		

출처: 미 보병학교 이수자들의 보직은 인터뷰 결과와 박정인, 『풍운의 별』, 홍익출판사, 1994, 215~217쪽; 백행길, 앞의 책, 1994, 89쪽; 이건영, 앞의 책, 1996, 59쪽을 참조하였으며, 본 연구자가 김운용과의 인터뷰 간 확인한 1953년 4차 미국 유학 이수자들의 모임인 '4미회(四美會)' 회원 16명과의 통화 내용을 반영하였음. 미 포병학교 이수자들의 보직은 문홍구, 『나의 軍 나의 삶』, 서문당, 1993, 318쪽; 육군본부, 앞의 책, 2012를 참조.

주 1) 김운용은 실제 사단 작전처에 파견되어 작전 및 통역 업무를 담당하였다.

〈표 2〉를 참조하면 한국군은 군사유학 이수자들을 대략 세 가지 분야에서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한국군은 이들을 야전부대의 작전 참모로 임명하였다. 작전 참모는 군사작전 수행과 교육훈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교로서, 유학 이수자들은 한국군의 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 창설되는 부대의 교육훈련을 전담하기 위해 야전부대 작전 참모로 보직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군은 유학 이수자들을 군사교육기관의 정비와 확충을 위하여 각종 군사교육기관의 교관으로 편성하였다. 이들은 신병양성을 위한 제1·2훈련소 및 사단 신병교육대 교관부터 장교 양성 및 보수교육을 위한 육군사관학교, 보병학교 및 육군대학의 교관까지 육군의 전 교육기관으로 배치되었다.<sup>64)</sup>

마지막으로 한국군은 이들은 부관 혹은 연락장교로 배치하였다. 유학 이수자들 중 영어 능력이 뛰어난 인원들은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의 부관으로 선발되어 통역업무를 전담하였으며, 연락장교로 파견되어 한국군과 미군 사이의 업무를 조율하였다.<sup>65)</sup>

그러나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1954년 12월 한국군의 증강 및 재편성이 완료되면서 유학 이수자들은 대부분이 군사교육기관의 교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이를 육군규정에 반영하여 보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뒷받침하였다. 유학 이수자들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보직이 바로 군사교육기관의 교관이었기 때문이다. 미 참모대학과 병과학교 교육 이수자는 각각 육군대학과 해당 병과학교 교관으로 최소 2년 이상 근무해야 하였다.<sup>66)</sup> 그리고 교관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인원들도 교육기관의

64) 張昌國, 『陸士卒業生』, 中央日報社, 1984, 363쪽.

65) 김운용(연락장교, 1953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구술.

66) 「장병유학규정」 제40조(육규 600-22, 1964. 6. 15). 이 규정은 1950년대 「육군유학 장병규정」과 「외국 군사학교 이수자 인사관리 규정」을 통합한 것이다. 현재 「외국 군사학교 이수자 인사관리 규정」의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구술을 통해서 「장병유학규정」에 반영되어 있는 유학 이수자 보직관리에 대한

주요 행정 실무자로 보직된 것으로 보아,<sup>67)</sup> 1950년대 중반부터는 군사교육기관의 확충에 주안을 두고 유학 이수자들을 활용하였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1950년대 중반부터 한국군이 군사유학 이수자들을 병과 학교에 증점적으로 배치하기 시작한 것은 이 시기 한국군이 직면한 상황과 그에 따른 군 조직의 변화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후 한국군은 대규모로 확장된 군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하면서 점차 지원임무(supporting mission)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sup>68)</sup> 따라서 한국군의 조직 역시 건설, 의료, 통신, 행정 분야 등 지원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되기 시작하였다.

한국군은 1954년 9월 기존 교육총감부를 교육총본부로 개편하면서 전투병과학교뿐만 아니라 기술 및 행정병과학교를 교육총본부 예하로 조정하여 군의 기술, 자재 활용 및 교육발전 업무를 통합하였다.<sup>69)</sup> 그리고 후방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1954년 10월 대구에서 2군사령부를 창설하고 그간 미 후방기지사령부를 통해서 지원받아오던 후방지원 일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sup>70)</sup> 이에 따라 한국군은 기술 및 행정병과의 군사유학을 확대하여, 유학 이수자들을 기술 및 행정병과 확충에 따른 교관과 주요 행정 실무자로 활용하면서 조직 재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해 나갔다.

---

내용들이 1950년대 그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참조하였다.

67) KMAG, 'Country Statement of Korea', June 1951, p.5(Section C), RG 319, "KMAG in Peace and War", Box 8.

68) Headquarters, Republic of Korea Army, 'Recommendations', Undated, '2. Enhancement of Military Training', RG 330, Records of Other Special Assistants, Entry 185, Van Fleet Files, Box 12, Recommendations.

69) 陸軍本部, 『육군발전사 제2권: 1953. 7. 27~1962. 12. 31』, 1970, 139~144쪽.

70) 김증기 편저, 『한국 군사사』, 경남대학교 출판부, 2011, 304쪽.

〈표 3〉 1952~1954회계연도 미국 군사유학 이수 및 1955~1956회계연도 요청 인원

(단위: 명)

회계연도 과정	1952회계연도 참석인원	1953회계연도 참석인원	1954회계연도 참석인원	1955회계연도 요청인원	1956회계연도 요청인원
지휘참모대학	2	6	15	15	20
시찰	-	9	6	14	18
보병학교	300	336	360	368	320
포병학교	201	248	289	274	164
기갑학교	14	14	17	24	62
공병학교	6	93	98	145	131
통신학교	12	15	20	50	95
항공학교	-	-	10	15	-
군의학교	4	64	28	48	48
부관학교	6	4	6	6	6
경리학교	-	2	4	5	5
병참학교	4	12	12	17	29
헌병학교	2	8	8	12	10
병기학교	5	8	12	54	95
정보학교	-	1	-	5	10
심리전학교	58	-	-	-	-
수송학교	2	2	4	3	18
화학학교	5	5	7	10	10
계	621	827	886	1,050	1,041

출처: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Department of the Army(1954. 5. 17), op. cit의 Tab M 'Summary of MDAP Training' 재정리.

실제 기술 및 행정병과가 확충되면서 장병들이 전문적인 기술력을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군사교육 과정들이 개설되었다. 예를 들면, 부관학교는 1954년에 인사행정반 및 필생 기술반, 1955년에 영어반, 1956년에는 한글 타자반을 개설하여 문서행정, 인쇄학 및 제본학, 영어 등을 교육하기 시작하였다. 병기학교에서는 1953년 차량수리반, 1954년에는 용접 및 다이아반, 1957년에는 샴시제생반, 기계공작반, 엔진재생반을, 병참학교에서는 1955년 피복수리반과 군화수리반을 개설하였다.<sup>71)</sup>

71) 1950년대 기술 및 행정병과학교에 개설된 교과 과정에 대해서는 교육총본부, 『교총사』 제1집, 1958의 제5편 제8장~제12장을 참조; 당시 군대의 교육이 한국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백종천·온만금·김영호 공저, 『한국의 군대와 사회』, 나남출판, 1994, 7장; 권자경, 「한국전쟁·전후복구와 자원동원: 국방분야 인적자원추출제도의 형성과 제도화」,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8권 제2호,

이러한 교육 과정들이 개설되면서 한국군이 미군으로부터 도입한 각종 기술 및 행정은 한국 사회 전반으로 전파될 수 있었다. 이처럼 1950년대 한국군 장교들의 미국 군사유학은 한국군이 군 조직을 개편하고, 재건 사업을 지원하는 등 국가시책에 앞장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나. 장교 교육의 표준화와 주체의식 제고

1950년대 중반 한국군은 한국군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군사유학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sup>72)</sup> 그러나 한국군이 유학 이수자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들을 주요 보직에 임명하면서 한국군 내 미국의 영향력은 점차 높아졌다.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미국의 동맹국 군대 표준화 구상이 한국군에 적용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영향을 평가할 것이다.

대규모 군사유학의 결과 한국군의 장교 보수교육 체계는 미군을 기준으로 표준화되었다. 1950년대 미군 장교의 교육제도는 사관학교 교육에서부터 국방대학까지 5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sup>73)</sup>

〈표 4〉를 보면 군사유학을 통해 2, 3단계에 해당하는 한국군 병과학교 교과 과정이 미국의 병과학교를 기준으로 정비되고 있음을

2011을 참조.

72) Headquarters, Republic of Korea Army(Undated), op. cit., ‘7. Increase of Service Units.’

73) 1단계는 사관학교 교육으로 장교로서의 기본적인 지식과 교양을 배운다. 2단계는 초등군사반으로 중대급 이하 부대의 지휘와 전술을 배운다. 3단계는 사단급 이하 지휘관과 참모가 구비해야 할 군사지식 습득을 위한 고등군사반이며, 4단계는 지휘참모대학과 연합참모대학으로 사단급 이상 부대의 이해와 합동작전에 필요한 타군의 성격과 기술을 제공한다. 5단계는 군사전략을 국방에 통합시키는 원리를 연구하는 국방대학과 각 군 대학원이다. 한국군은 4단계 연합참모대학과 5단계 각 군 대학원이 없다. 이를 제외하고는 미군과 동일하였다. (대위 박원구, 「통합 교육훈련에 대한 소고」, 육군본부, 『교육월보』 제60호, 1961, 161~162쪽).

알 수 있다. 1953년 한·미 포병학교의 교육과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1953년 한국과 미국 포병학교 교과 과정

구 분	교 과 과 정
한국 포병학교	고등군사반, 초등군사반, 자동차장교반, 차량정비반, 간부후보생반,
	측지장교반, 화포정비, 통신장교반, 통신반장반, 무선통화반,
	항공기조정반, 항공기정비반, 항공전술반, 탄도기상반
미국 포병학교	고등군사반, 초등군사반, 자동차장교반, 차량정비반, 간부후보생반,
	측지장교반, 화포정비, 통신장교반, 통신반장반, 무선통화반,
	항공기조정반, 항공기정비반, 항공전술반, 탄도기상반, 자동차 정비 감독반,
	측지고급과정, 관측장교반, 기상장비 정비, 대 박격포/포대 레이더, 섬광 측정

출처: 육군포병학교, 『육군포병학교사』, 2013, 3~30쪽; Fort Sill, *Guide for Student Officers*, 1952, p.23에서 재정리.

주 1) 강조는 1952년부터 편성되었던 과정이다.

또한 정우봉, 박경석의 술회는 한국과 미국의 초등군사반 교육의 유사성을 말해 준다.

유학 전 보병학교 교관을 했기 때문에 보병학교 커리큘럼을 잘 아는데, 미국 가서 보니 똑같아. 미국 포트베닝(미 육군 보병학교를 의미 - 인용자 주)의 것을 똑같이 가져왔어. (중략) 일반 참모학, 화기학, 전술학, 통신, 화학. 미 육군 보병학교와 똑같아. 내용도 별 차이가 없어.<sup>74)</sup>

우리 초등군사반 교육하고 미국 초등군사반 교육이 똑같아. 내가 27기를 나오고 미국을 갔다 왔거든. 그런데 과목은 똑같아. 그간 우리나라 교재를 미국 교재로 다 바꿨기 때문에.<sup>75)</sup>

이와 같은 유사성으로 인하여 군사유학은 해외 위탁교육을 통한 ‘보충’의 의미를 넘어서 동급의 한국군 군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74) 정우봉(생도2기, 1953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구술.

75) 박경석(생도2기, 1953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구술.

것으로 여겨졌다. 한국군 장교들은 규정 상 국내 초등군사반만 수료하면 유학생 선발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였고, 미 병과학교의 군사교육을 이수한 장교는 동급의 국내 병과학교를 수료한 것으로 인정받았다.<sup>76)</sup> 이는 1950년대 한국군이 미 병과학교의 교과 과정을 그대로 도입하면서 동아시아에서 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력 운영의 부분으로서 위치하게 되는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4단계 교육인 육군 대학은 개교 시 교관이 모두 미군 장교였다.<sup>77)</sup> 이후 고문단은 미 지휘참모대학 과정을 이수한 한국군 장교들으로써 육군 대학의 교과 과정을 정비하고자 하였다. 1956년 고문단은 미 지휘참모대학을 이수한 한국군 장교들이 육군대학 교관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78)</sup> 그리고 이러한 의견은 육군 규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지휘참모대학 이수자들은 귀국 후 육군대학 교관으로 최소 2년을 근무하게 되었다.<sup>79)</sup>

5단계 교육 기관인 국방대학원의 경우 교과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수진과 참모들이 ‘파일럿 코스(Pilot Course)’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4개월 동안 미군 장교들의 강의를 통해 19개 과목을 이수하였다.<sup>80)</sup> 국방대학원의 창설과정을 통해서도 한국군 군사교육기관의 교과 과정은 동급의 미국 군사교육기관을 참고하여 편성하였으며, 미군 장교들에 의한 사전 시험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을

76) 「육군장교 군사교육 관리규정」 제4장(육규 350-2, 1955. 6. 1).

7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군 초기 역사를 듣다: 군사영어학교 출신 예비역 장성의 구술』, 2012, 334쪽.

78) Colonel, James G. Holland, JR., Senior Advisor, ROKA CGSC, to the Chief, KMAG, ‘Final Report to the Chief’, 12 July 1956, pp.5~6, RG 319, KMAG in Peace and War, Box 9.

79) 「육군대학 학생선발 규정」 제4조(육규 600-23, 1959. 12. 1).

80) Headquarters, United Nations Command, Far East Command, ‘Command Report(RCS CSGPO-28(R1)) 1st Quater FY 57, July - September 1956’, Undated, pp.33~34, RG 550, Records of HQ, US Army Pacific Military History Office Classified,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Box 84.

알 수 있다. 1955년 국방대학원이 설치되면서 한국군 장교단의 교육 체계는 최 상위 단계까지 미군을 기준으로 표준화되었다.

이러한 장교 교육 체계뿐만 아니라 군사교리에 있어서도 표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으로부터 원자전 교리를 도입하는 과정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국군은 고문단의 요청으로 1955년 원자무기 연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는 군사유학을 통해 사전에 원자전 과목을 교육 받은 8명의 교관들로 구성되어 교범을 번역하고 강의를 실시하였다. 이후 고문단은 충분한 교관요원이 확보되었을 때 한국군의 각 교육기관에 원자전 과목을 편성할 것을 요청하였다.<sup>81)</sup> 이에 따라 한국군 포병학교는 1958년부터 초 등군사반의 전술학 분야에서 원자전 과목을 편성하였고,<sup>82)</sup> 1959년부터는 과목 시간을 12시간에서 48시간으로 확대하면서 교리 수용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켰다.<sup>83)</sup>

고문단은 원자전 교리를 한국군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한국군은 미군이 제공하는 내용 이외에 원자학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없다고 제한하였다.<sup>84)</sup> 즉, 새로운 교리는 미국이 판단하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따라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교리의 표준화가 지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것이 무기 체계의 혼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단계라는 점이다.

결국 미국의 군사유학 제공의 핵심적인 의도는 한국군의 군사제도를 미군을 기준으로 표준화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장교 교육 체계를 표준화하는 것이었다. 표준화를 통해 미국은 한국군 장교들에게 미국 군사제도의 합리성을 각인시켜, 한국군을 미국의 이해관계가

81) Major General, Carl F. Fritzsche, KMAG, 'KMAG Position Relative the Continuation of ROKA Atomic Warfare Training', 23 August 1956, RG 319, KMAG in Peace and War, Box 9.

82) 교육총본부, 앞의 책, 1958, 209쪽.

83) 육군본부, 『교총사』 제2집, 1960, 149쪽.

84) Major General, Carl F. Fritzsche, KMAG(1956. 8. 23), op.cit.

관철될 수 있는 군대로 만들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군사 관계에 있어서 종주국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sup>85)</sup>

이와 같은 미국의 의도는 초기 한국군의 형성과정과 성격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한국군 장교들의 전문성이 향상되면서 이들은 미국의 군사제도를 보다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였다.<sup>86)</sup> 이러한 한국군 장교들의 인식은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교육과 한국군에 적합한 군사교육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유학 제공 의도와 한국군의 수용 사이에 지속적인 균열을 야기하였다. 결국, 1950년대에 제도상에서는 미국의 동맹국 군대 표준화 구상이 한국군에 전적으로 관철되는 듯 보였으나, 군사적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은 확고한 지위를 확보할 수 없었다.

## 5. 맺음말

본 논문은 1950년대 한국군의 형성과정을 한국 정부의 국방 정책 측면에서 이해하고 이 시기 한국군의 능동적인 역할을 드러내기 위한 소재로서 한국군의 미국 군사유학 시행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던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85) 고문단은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군사 원호처를 통해 군사유학 이수자들이 유학 기간 중 지원받았던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미국의 군사원조로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개개인들이 직접 재확인하도록 조치한 것이다(정우봉(생도2기, 1953년 미 보병학교 초등군사반 수료) 구술). 미국의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인식의 이면에는 이와 같은 지원자와 수혜자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였던 미국의 의도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 86) 송택구 중령(육군본부 작전참모부 교육계장), 「육군교육의 전망」, 육군본부, 『교육월보』 제54호, 1959; 대령 김종구 외(육군대학 학술연구단), 「육군대학 교육과 관련성 있는 육군의 당면문제」, 陸軍大學, 『軍事評論』 第24號, 1963.

첫째, 군사유학은 미국의 ‘합리성’을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는 한국의 ‘젊은 장교’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교육 내용 역시 이러한 의도를 반영하여 장교 양성 및 보수교육을 접목한 ‘특별반’ 과정을 제공하였다. 미국은 이 계획을 통해 한국군을 미국의 지적·도덕적 지배가 관철되는 ‘미국식 군대’로 만들고자 하였다.

둘째, 군사유학을 통하여 한국군에 지적·도덕적 헤게모니를 구축하고자 한 미국의 의도는 궁극적으로 성취할 수 없었다. 대규모 군사유학 시행으로 한국군 장교 교육체계는 미군을 기준으로 표준화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 군사유학을 제공한 미국의 의도와 이를 수용하는 한국군 장교들의 인식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였고, 이는 미국이 군사적 종주국으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의미한다.

셋째, 한국 정부는 한국군의 증강과 전후 사회 재건을 고려하여 군사유학을 시행하였고, 이를 각종 선진제도와 행정 및 기술력을 획득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즉, 1950년대 한국 정부는 한국군의 역할과 위상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 달성이라는 군사안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사회 부흥이라는 국가운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고려하였다.

한국군의 형성과정에서 1950년대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이 시기 한국군은 독립국가의 군대로서 조직과 제도를 이제 막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전쟁으로 인하여 매우 급격한 확대·재편의 과정을 겪었다. 이때 미국은 군사유학을 매개로 한국군 운영 전반에 개입할 수 있고, 한국군의 탈식민화는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로 편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 정부와 한국군은 주도적으로 국방정책을 이끌어가고자 노력하였고, 인적·물적 자원의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군사유학을 적극적으로 시행

하였다. 한국군이 군사교육 체계를 정비하고 장교단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갈수록, 유학을 제공하는 미국의 의도와 그것을 수용하는 한국군 장교들의 인식에는 점차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1950년대 한국군의 형성과정을 미국의 국가만들기(nation-building) 측면이 아닌 한국 정부와 한국군의 능동적인 대응이라는 관점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비록 이 시기 미국의 영향력은 압도적이었으나, 한국 정부와 한국군은 미국의 헤게모니에 순응과 갈등을 반복하며 주체로서 이를 수용해 나갔다.

[원고투고일: 2015.10.10, 심사수정일: 2016.2.16, 게재확정일: 2016.2.19.]

주제어 : 상호방위원조계획, 군사원조, 표준화, 군사교육, 군사유학, 초등군사반, 동맹국 장교 특별반

<ABSTRACT>

The Republic of Korea Army Officers'  
Military studying-abroad in United States and  
Its Effects during the 1950s

Kim, Min-sik

Since the end of WWII, in order to prevent the USSR's expansion, the U.S. government had provided military assistances to Free World countries. With a view to maximizing the effects of the military assistance, the US government intended to 'Standardize' the allied countries' military systems. Specifically, the military education programs at the U.S. military institutions was considered as an important prerequisite for the success of the military assistance. Meanwhile, in 1951 the Korean War had entered into the phase of a cease-fire agreement. The U.S. government was interested in preventing the Korean War from expanding to WWII and establishing its dignity in Asia and for this purpose was in need to intervene in the operation of the Korean military. Simultaneously, the Korean government was in dire need to import the advanced U.S. military system in a short period. Likewise the massive dispatch of Korean Army officers to U.S. military institutions was undertaken in furtherance of the mutual interest.

The U.S. government arranged the Korean Army officers to participate in the Special Allied Officers Course, an amended education program based on the Officer's Basic Course. The Special Allied Officers Course included basic studies on military etiquette, commandership, leadership etc. In sum, the U.S. government provided that the young Korean Army officers would learn not only the military knowledge but also the customs and norms of

the US officer corps, thereby embodying the ‘American style military concept’. The Korean Army officers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aforesaid understood that the teaching methods of the US military education system are ‘reasonable’. And the Korean military appointed those officers to positions in charge of education and training thereby inducing them to propagate the knowledge and techniques. And their technological and administrative know-hows and skills were introduced to the Korean military’s branch education, and subsequently propagated into the Korean society.

The massive military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had resulted in the standardization of the Korean military system based on the U.S. system. As the Korean officers’ expertise grew further in late 1950s, however, they began to perceive that the U.S. military education system may not perfectly capture the requirements of the Korean military education suited to local characteristics. In the Korean military history, this was a time marked with overwhelming American influences and yet the Korean government and military was recognizing their initiative roles as shown in their responses repeating accommodation and struggles vis-à-vis the intellectual and moral hegemony of the United States.

Key Words : Mutual Defense Assistance Programs, Military Assistance, Standardization, Military education, Military studying-abroad, Officer’s Basic Course. The Special Allied Officers Course

